



# 기관/제도 개관 및 '21년 지원방향

사업개발본부 사업총괄실 F/S 지원팀



# 목 차

1. KIND 기관개관
2. 타당성조사 지원 제도 개관
3. '21년 타당성조사 지원 방향

# 1. KIND 기관 개관

## 01 설립 배경 및 목적



- 민간기업을 지원하여 사업을 개발하는 Developer
- 민간기업, 공기업 및 금융기관 등 Team Korea 를 선도하는 Leader
- 해외 PPP 사업 지분투자 및 금융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

### 외부환경

### 인프라·도시개발/ PPP수용증가 및 대형화

- 개도국 및 신흥국 인프라 건설시장 확대 및 도시화 추세가 가속화
- 정부 재원의 한계성 극복 및 민간의 창의성 요구로 PPP사업 확대
- 일본, 미국 등 주요국들은 정부 주도 PPP 지원기관 신설 및 지원 확대(일본 JOIN, 프랑스 EGIS, 미국 DFC)

### 국내환경

### 국내건설 및 금융의 해외진출 확대 필요

- 대형사업 및 PPP사업 대응 미흡으로 해외시장 수주실적 정체
- 국내 민간기업, 공기업, 금융권의 해외진출 필요성 대두
- 사업개발부터 프로젝트 전 단계에 걸쳐 Team Korea를 견인할 전문기관 설립 필요

해외인프라·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업발굴 및 개발, 금융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을 확대하고 국제수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『해외건설 촉진법 1조』

# 1. KIND 기관 개관

## 02 기관 프로필

▶ 국토교통부 산하 기타공공기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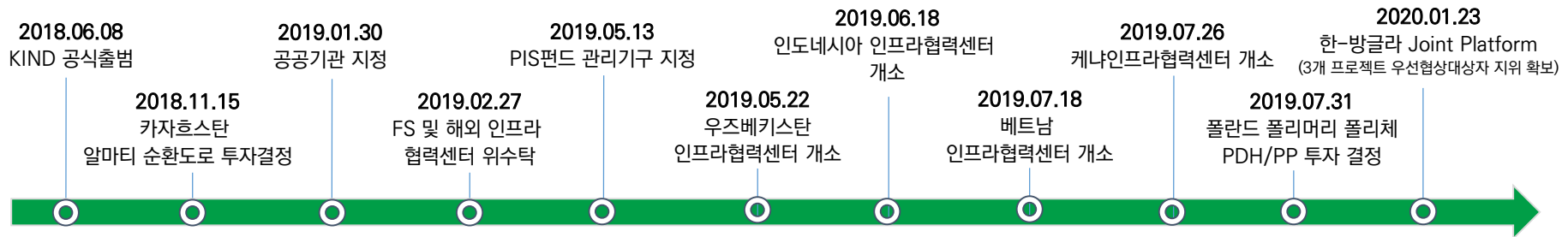
▶ 2017.10월 해외건설촉진법\* 개정을 통해 설립 근거 마련, 2018.6월 출범

▶ 대표적 특징

- 금융기관, 보증기관, 원조기관이 아닌 투자기관
- Co-developer로서 기업들과 함께 사업 초기부터 발굴하고 개발
- Co-sponsor로서 기업들과 함께 프로젝트에 투자
- Fund 투자자로서 금융기관들과 함께 인프라 펀드에 투자

# 1. KIND 기관 개관

## 03 주요연혁 및 주주현황



### [주주현황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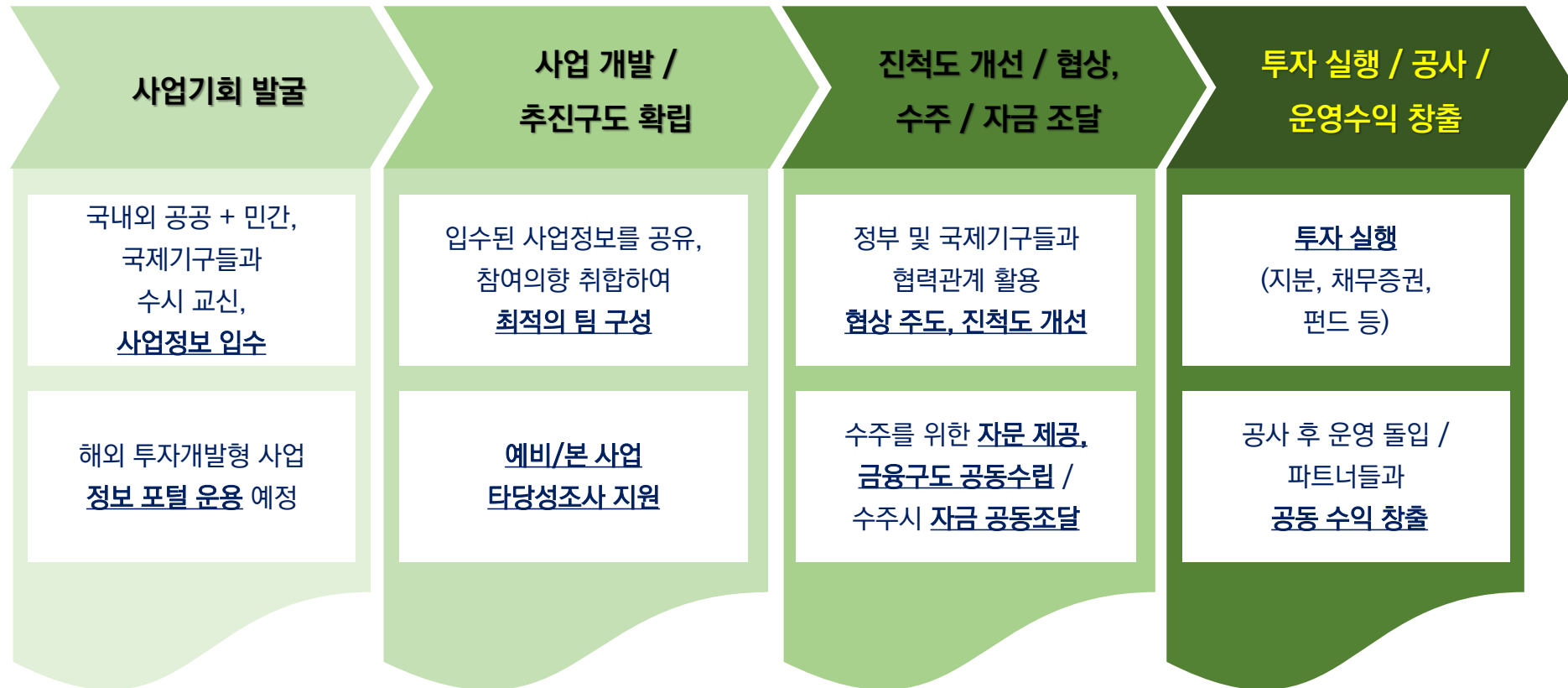
주주	2020. 05	
	주식수	지분율
대한민국 정부	19,000,000	33.5%
한국토지주택공사	6,274,800	11.1%
건설공제조합	6,000,000	10.6%
한국수출입은행	5,600,000	9.9%
한국철도공사	4,509,800	8.0%
한국도로공사	4,154,400	7.3%
한국수자원공사	4,154,400	7.3%
인천국제공항공사	3,689,400	6.5%
한국공상공사	2,033,800	3.6%
철도시설관리공단	1,306,000	2.3%
합계	56,722,600	100%

2020년 05월 기준 주주별 지분율



# 1. KIND 기관 개관

## 04 단계별 지원 방식



# 1. KIND 기관 개관

## 05 KIND 지원의 전반적 특징

구 분	특 징
타당성조사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▪ 불확실한 상황에서 초기 개발비를 非소구 조건으로 지원</li><li>▪ 일부 지원이 아닌 Turnkey 용역</li><li>▪ 사업주가 기술·재무·법적 타당성 분석 중 과업범위 조정 가능</li><li>▪ 건당 금액 통상 3~6억원 / 최대 10억원</li></ul>
유연한 투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▪ 인프라 + 도시개발 + 플랜트로 분야가 넓음</li><li>▪ BOO 등 순수 민간투자나 부동산 개발도 건별 심의 후 지원 가능</li><li>▪ 기타공공기관으로서 500억 이상 투자시에도 기재부 예타 대상 아님 (* 타 공공기관과 공동 투자시 기재부 예타 대상)</li></ul>
민·관 협력 구심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▪ 국제개발협력 사업협의회 (국사협) 간사기관/ 해외인프라 수주·투자 지원 협의회 참여기관</li><li>▪ GIF 투자기관 / PIS펀드 관리, 투자기관</li></ul>

## 2. 타당성조사 지원 제도 개관

### 01 지원 제도 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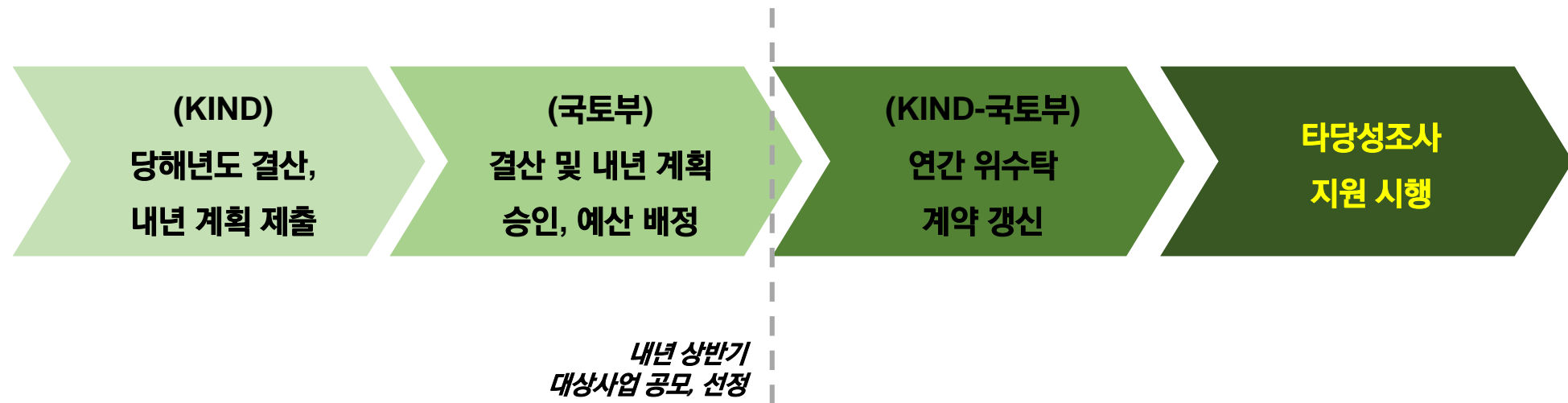
- ▶ 목적 : 해외건설사업자들의 초기 사업개발비 중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타당성조사 비용 지원을 통해 해외 투자사업 개발 활성화
  - 비용을 직접 해외건설사업자에게 지급하지는 않음
  - 해외건설협회, 플랜트산업협회, 엔지니어링협회 등과 같이 비용을 정산하여 매칭 지원하는 제도도 아님
- ▶ 실행방식 : 사업주가 유망하다고 판단하는 사업 중 선별하여 지원대상 사업을 결정하고, KIND 주관 하 용역 발주하여 용역 과정을 함께 감독하고 그 결과물을 사업주에게 제공함



## 2. 타당성조사 지원 제도 개관

### 02 지원 수행 체계 (국토부-KIND 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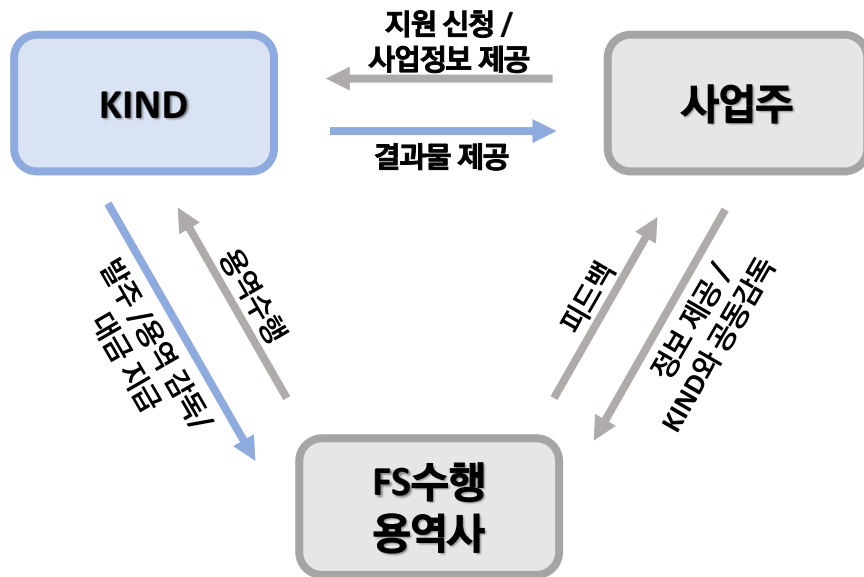
- ▶ 자금원 : 국토부 예산으로, 2019년 부터 국토부-KIND 위수탁 계약 체결을 통해 동 지원 사업을 KIND 주관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변경



## 2. 타당성조사 지원 제도 개관

### 03 수혜 구도 및 유의사항 (사업주-KIND-용역사)

#### ▶ 수혜구도



#### ▶ 유의사항

##### - 사업주

“완전히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.”

조사비, 출장비 등 자체자금 투입 필요

“사업이 잘 되시면 KIND 투자 Room을 주셔야 합니다.”

KIND 지원의 완성은 공동투자

##### - 용역사

“궁극적 목적은 KIND가 아닌 사업주 지원입니다.”

사업주 요청사항 반드시 반영 요망

## 2. 타당성조사 지원 제도 개관

### 04 발주 범위 및 성과품 처리

▶ **결과물은 기술적 타당성, 재무적 타당성, 법적 타당성 분석을 요구**

- 이유 : 자체 완결성을 가진 보고서를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

▶ **단, 발주 범위와 각 분석 간 비중은 사업주의 의도에 따라 결정**

- 예시 : 'A' 사업의 경우 사업주가 재무/법적 타당성 분석을 자체자금으로 부담하고, KIND가 제공하는 예산은 기술적 타당성 분석에 100% 사용하기로 하여 엔지니어링사가 단독으로 응찰, 수주 함

**사업주 : 자체 자금/역량을 고려하여 발주 할 과업 범위 산정**

▶ **성과품 처리 : 소유권은 국토부 및 KIND, 결과물 사용/활용 권한은 사업주**

# 3. 타당성조사 지원 방향

## 01 지원 방향

▶ **대전제** : KIND가 투자할 수 있는 가능성 높은 사업을 우선 지원

- 사업주의 추진 의지가 강하여 진척도가 높은 사업일 경우 유리할 수 있음
- 단, 예비/본 타당성조사의 비중은 내정하지 않음/ 수주 가능성, 수주 환경 종합 타진

▶ **기 간** : 1년 단위 예산 특성을 고려, 상반기 사업 모집 및 발주 집중 가능성

- 단, 비공모 사업의 경우 예측에 한계가 있음 (G2G 신청 등 시기 예측 불가)

▶ **건당 금액** : 건당 최대 10억원이나, 사업의 특성과 단계를 고려하여 책정 예정

# 3. 타당성조사 지원 방향

## 02 2021년 운영 (案, 미 확정)

- ▶ 예상 지원 예산 : 약 100억원
- ▶ 예상 지원 건수 : 약 18건
  - 공모 약 14건/ 비공모 약 4건
- ▶ 예상 일정 ('20.11월 '21년 상반기 공모사업 모집 이후)
  - '21. 1월 : 상반기 지원 대상 사업 선정 완료
  - '21. 2월 : 상반기 선정 사업 용역 발주
  - '21. 4월 : 하반기 지원 대상 사업 모집 공고
  - '21. 6월 : 하반기 선정 사업 용역 발주

# 감사합니다

KIND 사업개발본부 사업총괄실 F/S 지원팀  
fs@kindkorea.or.kr

